

서 현 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북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관련 서술 내용 비교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조 혜 정

남북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관련 서술 내용 비교 연구

서 현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조 혜 정

인 준 서

조혜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객관적인 사고나 인식의 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남북의 학생들이 상대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는다면 이는 통일 자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통일 이후 한국 사회의 재분단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때문에 남북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통일 이전부터 상대와 관련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와 같은 교육의 활동을 제시하여 주는 기본적인 자료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한 사회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학습도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북한과 같은 경우, 교과서 분석은 북한의 학생들이 남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도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관련 서술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0년대를 전후하여 상대관련 서술 내용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남북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남한의 6차,7차 사회과 교과서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일반사회(사회)와 북한의 고등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교과서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서술 내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남한 6차 교과서에서 정치영역의 서술 비중이 가장 높고(24.3%) 그 내용도 ‘폐쇄적’ ‘소극적’ 등의 단어를 통해 북한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서술이 주를 이루었다. 7차 교과서에서는 정치영역의 서술이 없어짐에 따라, 부정적인 상

대체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고, 대신 통일영역의 통일 국가의 모습(29.4%), 통일을 위한 준비(22.0%)의 서술 비중이 크게 증가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 변화를 통해 남한 교과서에서는 ‘북한’을 한 민족으로서 인식하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로 북한 관련 서술의 세부 내용이 변화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둘째, 남한의 이러한 변화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교과서에서 여전히 ‘남한’이 북한 체제의 선전을 위한 도구로서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99(98)년과 2003년 교과서에서는 변함없이 정치영역과 통일영역에서 남한 관련 서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치영역은 99(98)년 55.8%, 2003년 48.4%로 99(98)년에 이어 2003년에도 압도적으로 높은 서술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치영역의 세부 서술 내용상의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남한’ 정부는 미국과 함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 무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서술함으로써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양과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이 북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 관련 서술에 비해, 통일 이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으로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남한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 역시도 통일 이후 사회의 이질화를 충분히 대비할 정도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북 교과서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남북 교과서에서 상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보 제공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국가의 부정적인 모습 뿐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의 객관적인 서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통일 후’ 상대 국민들에 대해 남북의 청소년들이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한 서술이 필요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4
1) 연구문제	4
2) 연구방법	5
3. 연구의 제한점	7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8
1. 남북한 정치 교육의 이해를 위한 연구	8
2. 남북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관련 연구	11
1) 남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연구	11
2)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연구	12
3. 남북한 교과서 비교 연구	14
III. 남북 사회과 교과서 분석대상과 분석 준거	17
1. 분석 대상	17
2. 남북교과서에 나타난 상대관련 서술 유형 분석 준거	20
IV. 남북 교과서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	27

1. 남한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내용 변화 분석	27
2.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 관련 내용 변화 분석	41
3. 남북 교과서 상대 관련 서술 내용 변화 분석 결과 및 논의	54
V. 결론 및 제언	6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 1】 연구대상 남북한 고등학교(고등중학교) 교과서	19
【표 - 2】 분석 준거: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 관련 서술 유형	22
【표 - 3】 남한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 내용의 비중도	28
【표 - 4】 북한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 관련 서술 내용의 비중도	42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분단 이후 남북한 간의 적대적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교류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남과 북은 정치·경제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이질화가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미소 양진영의 냉전구도가 1980년대 말 이후 구 소련권과 동구권의 붕괴로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식을 가져왔고, 이러한 국제 정세의 영향 하에서 남과 북이 1992년 2월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통일 여건이 점점 더 성숙되어갔고,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행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통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¹⁾

이처럼 통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 준비만이 아니라 통일 뒤 사회 안정과 민족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 통일이전의 꾸준한 준비 없이 형식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실질적인 사회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정치, 경

1) "진정 남북통일을 원하는지" 여부의 질문에, 남북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6.2%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현상유지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9.8%, 통일 반대 의견은 2.7%, 잘 모름이 7.4%, 기타 4%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통일된 남북이 보다 강대국이 될 수 있으므로'(43.8%),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26.5%), '원래 남북은 단일민족이니까'(23.9%)순으로 응답했다. 정용하·김태환(2005). 통일교육 방식과 내용에 따른 통일·평화의식의 변화. 韓國民族文化, Vol.26 pp.326-327.

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북의 이질화는 심화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준비 없는 남북통일은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 지속되어온 상호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

독일의 예를 보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구 동서독 국민들은 심각한 이질감과 갈등상황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멘 역시, 국민적 이해과정이나 합의가 결여된 채 통일을 맞이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통일 후 내란과 재분단의 위기를 맞는 원인이 되었다.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과 예멘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준비 없이 외형상의 통일만을 추구할 경우 통일 후 내부적인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회혼란은 결국 통일 후 남북 국민들의 심리적 재분단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 꾸준하고 다양한 교류가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 상호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의식적 문화적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식이나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교육이다. 교육은 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며 학교에서 습득한 가치관이나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특정사실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준거의 틀로 작용하기 때문에 남북한 이질화 극복에 있어서 중요하고 효율적이다. 결국 남북의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설정하게 되므로 올바른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남북한은 국가체제 유지에 부합하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가

2) 유균상 외(1997),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1-2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남과 북의 이질화는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고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상대에 대해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기본지침서인 교과서에 주목하여 남한 교과서에서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 내용과 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난 남한 관련 서술 내용 등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서술내용 특징과 변화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6차 교과서와 7차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 내용의 각 영역별 비율과 세부 내용 변화, 1999(98)년 출판된 북한 교과서와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교과서인 2003년 북한 교과서³⁾에 나타난 남한 관련 서술 내용의 각 영역별 비율과 세부 내용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과 북의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 관련 서술 내용의 변화와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남한에서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교과서임.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한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관련 서술과 북한의 고등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 관련 서술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첫째, 남북한 정치 교육의 비교 연구, 둘째, 남한 교과서와 북한 교과서의 통일교육 연구, 셋째, 남북한 교육 비교를 통해 통일 후 사회과 통일 교과서 개발의 기초자료로서의 연구 등의 세 가지 유형을 검토해 보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남북 교과서 상에 나타난 상대관련 서술 내용의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 상대관련 서술 내용과 그것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남북 교과서에서 상대 관련 서술의 내용을 분석해봄으로써 남북의 학생들이 상대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유추해보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남한 6차, 7차 고등학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일반사회(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관련 서술 유형에 따른 수(數)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6차에서 7차로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서술 유형 영역별 비중 변화가 있는가? 또한 6차와 7차의 북한관련 세부 서술 내용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둘째, 북한에서 99(98)년과 2003년 출판된 고등중학교 교과서 중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대원수님 혁명력사 > 5학년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

수님 혁명력사> 6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관련 서술의 유형에 따른 수(數)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99(98)년 출판된 교과서와 2003년 출판된 교과서상에 나타난 남한관련 세부 서술 유형 영역별 비중 변화는 있는가? 또한 99(98)년과 2003년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관련 세부 서술 내용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셋째, 남북 교과서에 서술된 상대관련 서술 유형의 영역별 비율이나, 구체적인 서술 내용의 변화가 남과 북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남북 교과서에 서술된 상대관련 서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면 각각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 가능한 남북 고등학교(고등중학교) 교과서를 통해 남과 북의 사회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방법(comparative analysis method)이다.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과서를 학년별로 모두 수집하지 못한다는 제약점이 있었지만, 남과 북 모두에서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수집할 수 있는 교과서의 범위 내에서 문헌자료를 통한 내용분석의 방법은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치교육 비교연구, 남·북 사회과 교과서의 통일교육 연구, 남북한 교육 비교에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대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상대체제 관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술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남한의 6차,7차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일반사회(사회) 교과서에 ‘북한’ 관련된 단어가 속해있는 문장과 북한의 99(98)년과 2003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대원수님 혁명력사 >5학년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6학년 교과서에 ‘남한’ 관련된 단어가 속해있는 문장을 모두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각각의 문장을 영역별로 분류 후, 비중도와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위의 분석을 통해 2000년대를 전후하여 남, 북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상대관련 서술 영역별 비중도의 변화 유/무와 세부내용상의 변화 유/무를 분석해 본다.⁴⁾

넷째, 2000년을 전후한 남북 교과서의 영역별 비중도와 세부내용 변화 분석 결과 비교를 통해, 남북 교과서에서 상대관련 서술의 특징을 각 영역별로 도출하고 서술내용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언해본다.

4) 임현아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국어>교과서 상에서 나타나는 통일관련 교육 내용의 비중이 91년 출판된 교과서보다 97/98년 출판된 교과서에서 각 학년별로 1학년은 3%증가, 2학년은 3%감소, 3학년은 6%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의 통일 관련교육은 양적인 면에서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현아의 논문에서는 통일 관련 내용의 실제적인 변화보다 양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연구하였고, ‘통일교육’이라는 측면에서만 북한의 교과서를 분석했다는 제약이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연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인 자료의 부족이다. 북한 교과서의 경우 학년별, 시기별로 교과서를 동일한 수준에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원수님 혁명력사 5학년」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6학년」의 분석 대상을 동일한 학년으로 하지 못했다는 제약점이 있다.

둘째, 남한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 제도기인 6차 정치, 경제, 일반사회를 제외하고는 6차 사회·문화, 7차 교과서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사실상 남한 6차 사회·문화와 7차 사회과 교과서는 출판된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⁵⁾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교과서 선택의 문제가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⁶⁾ 출판 부수가 가장 높은 교과서를 각 과목별로 한 권씩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상대관련 서술의 내용 분석은 유형에 따른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연구자의 기존 남과 북에 관련된 주관적 가치와 태도가 자료의 분석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제약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기존 문헌을 검토해보고, 이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5) 교육법 제155조 1항

6) 김영아(2005).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 변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남북한 교육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남북한 정치 교육 비교연구**, 둘째, 통일 후 남북한의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의 준비로서의 **남북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 관련 연구**, 셋째 **남북한 교과서의 비교연구**를 통해 통일 후 사회과 통일 교과서 개발의 기초자료로서의 연구 등의 세 유형이다.

1. 남북한 정치 교육 비교연구

남북한 정치 교육의 이해를 위한 연구는 북한 교육에 관한 연구물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연구 성과가 나온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정치교육은 그 시대의 그 나라 국민이 지녀야 할 이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정치사회화의 차원에서 지향하는 정치적 태도나 성향을 가르치려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다. 따라서 남북 정치 교육 비교연구는 남북의 통일교육을 포함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김경호⁷⁾, 정영순⁸⁾, 심은혜⁹⁾등은 구체적 연구를 통해 남북한에서 실시되어온 정치 교육을 연구했다. 김경호는 연구를 통해서 그 동안 북한에서 실시되어온 정치교육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북한 정치 교육의 전개과정을 분단

7) 김경호(2000). 북한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교육논총 제26집.

8) 정영순(1999).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사회과교육. 제32호.

9) 심은혜(1997) 남북한 정치교육 비교연구-중고등학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후 사회주의 교육 도입기부터 90년대의 실용주의 교육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정치 교육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북한 정치교육의 목적과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전통사상, 주체사상에 이르는 정치이념을 서술함으로서 북한 정치 교육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심화되어 온 정치 교육 분야에서의 남북 이질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김경호의 연구는 북한의 정치교육분야의 개념과 전개과정, 교육목적과 이념을 통해 북한의 정치교육의 전반적인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공헌이 있지만, 분단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정치 교육의 전개과정을 지나치게 거시적으로 분석해 세부적인 변화의 내용은 알기 어려웠다는 제약점이 나타난다.

정영순은 연구를 통해 정치사상교육이 북한 사회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현재 북한 김정일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사회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통일을 위한 한국 사회과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했지만, 김경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치 사상교육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석 기준이 지나치게 거시적이어서 세부 내용 변화를 알기 어렵다는 제약점이 있다.

심은혜는 연구를 통해 남북한의 정치교육의 이념과 목표, 정치교육의 변천과정을 분단이후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정치교육의 이념과 목표, 북한의 정치교육의 이념과 목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체체제를 수용하면서 정치교육의 이념과 목적, 변천과정, 내용과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나타내었고, 남북한 모두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위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남과 북의 ‘정치교육’의 분석을 통해, 남한의 정치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해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다루는 목적적 인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 교육이 전체주의적 특성, 김일성 우상화 교육, 획일적인 교육체계, 억압적인 학생 통제 방식, 북한 교육에서 남한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고 적개심을 부추기는 정치교육 목표를 통해 인간을 수단적 존재로 다루는 수단적 인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북한의 이와 같은 정치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남과 북의 정치교육은 이와 같이 그 방향이 상이함으로써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이질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정치 교육 비교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남북의 정치교육 내용의 분석을 통해 남과 북의 정치교육의 이질화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 향후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이질화 구조를 좁히기 위한 남북의 정치교육 통합의 중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남과 북에서 총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치교육의 이념과 목적, 변천과정, 정치교육 내용과 방법 등 남북의 다양한 정치 교육의 특징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의 정치교육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에서 정치교육의 변천 과정을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순히 시계열적이고, 거시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남과 북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제약점이 있다.

2. 남북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 관련 연구

다음은 통일 후의 교육통합을 위한 통일교육¹⁰⁾의 기초자료로서의 남한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 북한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 교육 내용을 분석한 기존연구들에 대한 검토이다.

1) 남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 교육 연구

통일교육의 준비로서의 남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에 관한 분석은 이기수¹¹⁾, 김영아¹²⁾등으로 남한의 사회과교과서에 나타난 통일 교육의 내용분석을 하고 있다.

이기수는 남한의 통일 정책의 통일 교육의 전반적인 의의와 개념을 살펴보고 통일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을 알아본 후, 사회과교과서 통일교육에 대한 분량과 통일교육에 관련된 단원이 교과내용에 얼마나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및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기수의 연구는 대부분의 남한 사회과 통일 교육과 관련한 기존 연구가 남한 사회과 교육의 의의, 개념, 목표 등을 연구하고,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 관련 내용의 비중 등을 양적으로 분석하거나,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을 제1공화국~현재까

10) 1999년 2월에 공포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교육'을 말한다.(통일부.2000)

11) 이기수(2006). 고등학교 사회과교과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김영아(2005).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 변화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 제1차 교육과정~현재까지 등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제약에서 벗어나, 남한 7차 사회과 교과서를 수치화하여 양적으로 분석한 후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지도방안을 모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남한의 7차 교과서만을 분석함으로써 단선적인 연구에 그쳤고, 북한의 교과서와 구체적인 분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제약점이 있다.

김영아는 연구를 통해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통일교육의 환경을 반공교육기의 통일환경, 안보교육기의 통일환경, 평화교육기의 통일환경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남한 교육정책의 변화와 사회과 통일교육의 변화 과정을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연구했다. 김영아의 연구는 구체적인 내용분석의 근거 틀을 통해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남한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지만,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의 직접적 인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나타난다.

2)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 교육 연구

통일교육의 준비로서의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관련 내용**에 관한 분석은 강지한¹³⁾, 엄현아¹⁴⁾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강지한은 북한 교과서 분석을 통해 북한 통일교육이 기본적 이념과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학교교육을 실시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통

13) 강지한(1996). 북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내용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2집.

14) 엄현아(2001). 북한 고등중학교 교과서의 통일관련 내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 교육의 내용은 공산주의 사회사상을 강조, 혁명의식과 집단생활의 강조, 남한에 대한 적개심 고취와 전투의식 함양 등을 주로 다룸으로서 통일을 위한 준비로서의 교육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엄현아는 논문을 통하여 북한 고등중학교의 「공산주의 도덕」 「국어」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관련 내용을 1990년대를 전후로 통일관련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내용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북한 교육에서 통일관련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엄현아의 논문은 기존의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관련 내용 분석이 단일교과 중심의 연구에서 「공산주의 도덕」 「국어」 「지리」 교과서로 연구 대상을 다양화했고, 분석영역을 체계적으로 나누었다는 면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엄현아 연구의 목표 중 하나였던 1990년대를 전후로 한 통일관련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내용변화는 「국어」 교과서에서만 분석을 했고, 그 분석 내용도 영역별 양적인 변화만을 분석해 북한의 통일교육의 변화를 추정해본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제약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관련 내용의 특징을 분석한 것 역시 교육목표나 교육목적의 서술 등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통일교육의 비중과 내용변화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양적인 비중변화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질적인 내용변화를 연구해낸 것은 미흡했다. 더불어 북한의 교과서를 직접 분석함에 있어서도, 남한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과의 직접적인 비교 없이 남북교과서의 이질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남과 북의 교육 분야에서의 통일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제약점이 있다.

3. 남북한 교과서 비교 연구

세 번째 범주는 남북한 교과서 비교 연구를 통해 통일 후 사회과 통일 교과서 개발의 기초자료로서의 기존 연구이다. 남북한 교육 비교 연구는 남한과 북한을 동일한 비교 선상에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남북한 교육 비교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¹⁵⁾에서 실시한 연구와 엄재호외¹⁶⁾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997년 실시한 연구는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교과서상에 나타난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비교, 통일교육의 비중과 내용, 통일 교육의 내용의 시기에 따른 변화와 방향 등의 분석을 통해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는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 사회과의 교육과정, 편제 등의 분석 뿐 아니라 남북 교과서 내용의 비교분석이 잘되어 있었지만 비교 분석 대상이 남한의 6차 교과서와, 북한의 1990년대 초반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어서 남북 교과서의 내용 변화를 담지 못했다. 또한 수평적 비교 기준이 상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과 관련한 내용 서술 분석이 아닌 ‘통일’에 국한된 분석을 함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과서 비교가 되지 못했다는 제약이 있다.

엄재호·강지한·문장순의 연구는 남북한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남북 통일교육의 목표와 비중, 통일교육의 중심내용 등을 비교·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남북 교과서 내용상, 교과 운영상의 보완점을 제시를 그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 통일교육의 비중 등의 양적인 비교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남북 통일교육의 내용 변화의 구체적인

15) 유균상 외(1997).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6) 엄재호 외(1996).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내용 분석. 평화연구 제21집.

예시를 통한 남북 교과서의 내용 비교 등이 자세히 나타나지 못한 제약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과 북이 분단으로 인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 준비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흐름은 기존연구검토에서 보았듯이 크게 남북한 정치교육 고찰, 남한의 교과서상에서의 통일교육의 내용 분석, 북한의 교과서상에서의 통일교육 내용 분석, 남과 북의 교과서의 비교 분석을 통한 통일 교과서의 기초자료 개발이며, 이는 통일을 준비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남북의 교육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남, 북의 사회과 교과서 연구는 주로 사회과 교과서의 정치교육의 전개과정, 정치교육의 이념과 목표, 사회과 교과단원의 구성방식이나 단원체계 분석, 통일교육 목표, 목적, 이념, 내용의 시기와 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들은 남북한 교과서 구성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분석해 통일에 대비한 교과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남북한 교과서 비교 연구가 지나치게 교과서의 구성방식과 단원체계 연구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더라도 분석의 대상이 국가의 통일정책의 단순 나열이나,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었고, 남북의 사회과 교과서 비교 연구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연구하지 못하고, 단선적인 연구에 그쳤다는 제약점이 있다.

사회과 교육은 현존 사회가 지향하는 체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사회 체제는 사회 운영의 기본 이념과 방향, 정치·경제 등 사회 여러 부문의 제도와 조직,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상정하는 인간상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¹⁷⁾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에서 국가의 통일정책의 단순 나열이나, 통일의

17) 유균상외(1997),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p.20.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남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를 이해하고 그 이해 정도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당위적인 통일 교육외의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상대 관련 서술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교과서에서 상대관련 서술 내용의 변화와 방향은 어떠한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교과서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남과 북의 교과서에서 상대관련 서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상대 관련 서술의 내용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도록 배우고 있는가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Ⅲ. 남북 사회과 교과서 분석대상과 분석 준거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남북의 교육 분야에서의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남북 고등중학교(고등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 관련 서술을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분석 기준을 2000년 이전과 이후로 잡은 이유는 2000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얻어낸 ‘남북 공동선언’이 민족사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계기로 남북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18)

연구 대상을 ‘교과서’로 정한 이유는 교과서는 어떤 교육의 맥락이건 교사와 학교가 교육을 행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과 같이 학생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사회에서는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이념을 가장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도구로서의 교과서의 영향이 더 막강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분석 대상을 ‘사회과’ 교과서로 선택한 이유는 사회과의 교과 목적이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남과 북의 이념과 가치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교과목이며, 특히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교과목이기 때문이다. 사회과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 아래 본 연구

18) 우리나라 통일 교육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먼저 1948~1989년 반공 중심 통일 교육, 1990~1999년 안보 중심 통일 교육, 2000년~현재까지를 공동체 중심 통일 교육의 세 시기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우선적으로 통일 교육의 성격으로 나눈 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국내적 주요 환경요인을 적용하여 분류한 것이다. 통일 교육 변천과정의 시기별 구분 중, 안보 중심 통일 교육에서 공동체 중심 통일 교육으로의 구분기준을 2000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잡고 있다.

는 남한 6,7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고등중학교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원수님 혁명력사>¹⁹⁾ 5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²⁰⁾ 6학년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²¹⁾ 고등중학교의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교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시기는 의무교육에 해당하여 모든 학생들이 같은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는 점과 이 고등중학교 시기가 인간의 가치·태도의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 때문이다. ²²⁾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표 1> 과 같다.

19) 이후 장에서는 「김일성 혁명력사」로 표기.

20) 이후 장에서는 「김정일 혁명력사」로 표기.

21)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초기의 북한 사회과에 관한 연구는 남한과 같은 의미의 '사회과'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즉 분과형의 과목인 지리, 역사를 사회과로 보기도 하고, 공산주의 도덕 같은 교과를 사회과의 범주에 넣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등·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물 이후에 북한 사회과 관련 논문들은 대체로 김일성·김정일 관련 교과를 남한의 사회과와 대비할 수 있는 교과로 보고 있는 추세이며, 본 연구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 관련 과목의 내용 중 남한의 사회과의 내용과 대비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22) 남북한은 광복이후 분단되면서 서로 상이한 학제를 유지해 왔다. 먼저, 학교전 교육단계를 보면 남한은 3-4세 유아원단계와 5-6세 유치원 단계를 두고 있다. 북한은 3-4세 탁아소 단계와 5-6세 유치원 단계를 두고 있다. 즉, 학교전 교육단계는 명칭만 달리하고 나이에 따라 4년간의 교육기간을 두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초등학교를 7세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으나 남한이 6년제인데 비해 북한은 4년제로 하고 있다. 중등학교는 남한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고 있으나 북한은 고등중학교로 되어 있다. 학제는 총 6년으로 같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남한의 고등학교 사회과와 북한의 고등중학교 5-6학년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한 비교 대상으로 생각된다. (부록 참조)

<표 1> 연구 대상 남북한 고등학교 (고등중학교) 교과서

	90년대 출판 교과서	2000년대 출판 교과서
남한 교과서 (고등학교)	「정치」.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경제」.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일반사회」.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사회·문화」.(주) 천재교육	「정치」.(주) 천재교육 「경제」.(주) 두산 「사회」. 법문사 「사회·문화」.(주) 천재교육
북한 교과서 (고등중학교)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원수님 혁명력사.(5학년,199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6학년,1999)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원수님 혁명력사(5학년,200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6학년,2003)

고등학교 수준의 남북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는 상대관련 서술 내용에 대한 분석준거는 다음과 같다.

2.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관련 서술 유형 분석 근거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관련 서술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는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 이후 남북 상황, 남북 분단의 문제점을 서술한 <분단> 영역, 둘째는 통일정책의 추진, 통일의 방법, 통일국가의 모습, 통일을 위한 준비를 서술한 <통일> 영역, 셋째는 상대체제에 대한 인식, 상대국민·단체에 대한 인식,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 상대 정치적 사건 서술의 <정치> 영역, 넷째는 경제적 교류와 사회·문화적 교류를 서술한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통일부의 「통일 교육 기본 지침서」(2001)에 따르면 우리의 통일교육 목표에 따른 통일교육의 과제는 크게 통일의지의 고취,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중요성 인식, 객관적 북한 관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이해,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민족 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일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통일 교육의 기본 방향」을 선정하여 학교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 교육의 기본 방향」의 내용체계²³⁾를 통해 남북 교과서에 나타나는 상대 관련 서술의 <분단>영역과 <통일>영역의 분석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정치>영역과 <경제·사회·문화적>영역은 남북 교과서에서 함께 포함하고 있는 상대관련 서술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23)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1.통일의 의미와 당위 2.통일 문제의 성격 3.통일 논의의 범위 4.분단의 원인과 심화 5. 분단의 폐해 6.북한 체제의 특성 7.북한 위기의 본질 8.북한의 인권문제 9.북한의 대남공세 10.국제 질서의 변화 11.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12.남북 관계의 변화 13.통일의 촉진 및 장애 요인 14.분단국 통일의 교훈 15.대북 정책 추진 원칙 16.대북 정책의 추진 기조 17.통일의 방법 18. 남북 대화 19.한반도 평화 문제 20.남북 기본 합의서 21.남북 교류 협력 22.대북 지원 23.대북 경수로 지원 24.통일 사회의 미래상 25.통일을 위한 준비.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가 너무 다양하고 포괄적이라 학교교육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분단>영역과 <통일>영역의 세부내용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후 비교 분석틀을 만들었다. 개발된 비교 분석틀은 사회교육 전공교수와 석사과정생 4명으로 구성된 내용전문가에게 상대관련 서술 유형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받아 보완하고 수정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완성된 서술 유형 구분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 관련 서술의 유형별 비중도(%)를 산출하여 남북 사회과 교과서에서 상대관련 서술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보겠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교과서의 본문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 북한 교과서에는 본문이외의 삽화나, 탐구활동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남한교과서에서도 탐구활동, 읽기자료, 다른 시각 엿보기, 삽화 등을 통해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남북한 교과서의 각 영역별 세부내용의 자료의 수를 측정하여 다음의 <표 2>의 형식에 맞추어 비중도²⁴⁾를 알아본다.

24) 비중도(%) = 각 세부내용의 문장의 수 / 전체 상대관련 문장의 수×100
(단,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표 2>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 관련 서술 유형 분석 근거

	세부내용	남북교과서		증감%
		90년대 출판	2000년대 출판	
분단	1.분단의 원인과 과정			
	2.분단 이후 남북 상황			
	3.남북 분단의 문제점			
통일	4.통일정책의 추진			
	5.통일의 방법			
	6.통일국가의 모습			
	7.통일을 위한 준비			
정치	8.상대체제에 대한 인식			
	9.상대국민·단체에 대한 인식			
	10.체제의 우월성 강조			
	11.상대 정치적 사건 서술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12.경제적 교류 (교류의 과정, 의의, 방법)			
	13.사회·문화적 교류			
	총문장수			

네 가지 영역인 분단, 통일, 정치, 경제·사회·문화적 분야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분단 영역

분단 영역은 크게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 이후 남북 상황, 남북 분단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분야에 속하는 교과서 서술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분류		남한 사회과 교과서 예시	북한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교과서 예시
분단	1. 분단의 원인과 과정	-일본의 강제 지배 아래 있던 우리 민족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광복되었지만 곧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남북의 분단은 민족 내부의 갈등과 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에서 기인한다. (정치, 7차, p.264)	제시되어 있지 않음.
	2. 분단 이후 남북 상황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된 지 50년이 지났고, 그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다른 사회·문화적 경험을 해 왔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개인주의와 자유 경쟁을 강조한 반면,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아래에서 집단과 충성을 강조해 왔다. ... 이에 따라 분단 전과는 다른 이질성이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다.(사회, 7차, p.302)	제시되어 있지 않음.
	3. 남북 분단의 문제점	-남북한 간 군사적·정치적·외교적·경제적 대결로 인한 분단 비용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통일이 요구된다.(정치, 7차, p.265)	제시되어 있지 않음.

② 통일 영역

통일 영역은 크게 통일정책의 추진, 통일의 방법, 통일 국가의 모습, 통일을 위한 준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분류		남한 사회과 교과서 예시	북한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교과서 예시
통일	4. 통일정책의 추진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정상 만나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 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및 교류 활성화,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 개최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합의문을 내놓았다.(사회. 7차.p.258)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마련되자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 나가시었다. 7.4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북과 남사이에는 적십자회담과 북남조절위원회가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진행되었다.(김일성 혁명력사.1998.p.61)
	5. 통일의 방법	-통일 국가의 수립절차는 남북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의 회복을 바탕으로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연합’단체를 거쳐 통일 헌법에 따라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1민족 1국가 체제의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있다.(사회.7차.p.29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대회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체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김일성 혁명력사. 2003.p.65)
	6. 통일국가의 모습	-남북 통일 이후 경제 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 통일 초기에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북한 지역 곳곳의 환경 파괴나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경제.7차.p.240)	제시되어 있지 않음.
	7.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 이후 ... 여러 경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낙후된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남북한 간의 경제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은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경제.7차. p.246)	제시되어 있지 않음.

③ 정치 영역

정치 영역은 크게 상대체제에 대한 인식, 상대국민·단체에 대한 인식, 체제의 우월성 강조, 상대 정치적 사건 서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분류		남한 사회과 교과서 예시	북한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교과서 예시
정치	8.상대체제에 대한 인식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물론, 서방 세계에도 폐쇄적인 입장을 고집하면서 극히 제한적인 개방과 외자유치 정책을 고수하고, 개방 자체를 체제의 존입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경제.6차.p.237)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면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약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김일성 혁명력사. 1998.p.30)
	9.상대국민, 단체에 대한 인식	제시되어 있지 않음.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 자신이 주동이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어 투쟁을 벌려야 미제식민지통치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미제를 몰아낸 다음 인민들이 요구하는 새 사회를 건설 할 수 있다.(김일성 혁명력사. 1998.p.31)
	10.체제의 우월성 강조	제시되어 있지 않음.	우리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이 더욱 높아지고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빨리 늘어난 반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김일성혁명력사. 1998.p.60)
	11.상대 정치적 사건 서술	제시되어 있지 않음.	-주체68(1979)년 10월부터 부산, 마산, 서울,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곳에서 벌어진 인민들의 투쟁은 마침내 박정희역적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김정일혁명력사. 2003.p.80)

④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영역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영역은 크게 경제적 교류와 사회·문화적 교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분류		남한 사회과 교과서 예시	북한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교과서 예시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12.경제적 교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88년 남북한 물자 교역을 동족 간의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특별 조치를 내렸다. 또, ‘남북 물자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라 물자의 교류가 기업에게 허용되었다. (경제.6차.p.237)	제시되어 있지 않음.
	13.사회· 문화적 교류	-(앞으로) 교육·학술·문화·예술·종교·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늘리면서,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민속이나 문화 유적·역사·지리·사회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사회·문화.6차.p.297)	-북과 남 사이의 적십자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호상방문이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서면서 평양과 서울에서 북과 남의 축구선수들이 서로 래왕하면서 <<통일축구경기>>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과 남의 예술인들도 평양과 서울로 오고 가면서 <<범민족통일음악회>>와 <<90송년통일음악회>>를 진행하였다. (김정일 혁명력사. 2003.p.137)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의 근거에 따른 분석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

IV. 남북 교과서 분석의 주요 결과 및 논의

1. 남한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내용 변화 분석

남한의 6차, 7차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관련 전체 서술 문장 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서술 문장의 비중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을 통해 남한 사회과 교과서 6차와 7차를 비교해 볼 때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영역은 6차 18.9%에서 7차 61.5%로 +42.6%, 분단영역은 6차에서 18.9%에서 7차 33.9% + 15%로 상대관련 서술 내용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둘째, 정치영역에서 6차에서는 24.3%의 내용 서술을 보인데 반해, 7차에는 그 서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의 내용은 6차에서 37.8%에서 7차 4.6%로 33.2%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표3> 남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 내용의 비율 변화(%)

	세부내용	남한 사회과 교과서		증감%
		6차	7차	
분단	1.분단의 원인과 과정	7.2 (8)	1.8 (2)	-5.4
	2.분단 이후 남북 상황	9.0 (10)	25.7 (28)	+ 16.7
	3.남북 분단의 문제점	2.7 (3)	6.4 (7)	+ 3.7
소계		18.9 (21)	33.9 (37)	+ 15
통일	4.통일정책의 추진	9.9 (11)	3.7 (4)	-6.2
	5.통일의 방법		6.4 (7)	+ 6.4
	6.통일국가의 모습		29.4 (32)	+ 29.4
	7.통일을 위한 준비	9.0 (10)	22.0 (24)	+ 13
소계		18.9 (21)	61.5 (67)	+ 42.6
정치	8.상대체제에 대한 인식	24.3 (27)		-24.3
	9.상대국민, 단체에 대한 인식			
	10.체제의 우월성 강조			
	11.상대 정치적 사건 서술			
소계		24.3 (27)		-24.3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12.경제적 교류 (교류의 과정, 의의, 방법)	35.1 (39)	4.6 (5)	-30.5
	13.사회·문화적 교류	2.7 (3)		-2.7
소계		37.8 (42)	4.6 (5)	-33.2
총문장수		111	109	

※비율%(수), +는 증가, -는 감소를 의미함.

이러한 비중 변화와 더불어 내용 변화는 어떠한지 북한 관련 서술 내용이 6차보다 7차에서 증가된 분단영역과 통일 영역의 상세한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서술 내용이 감소한 정치영역과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겠다.

먼저 서술 내용이 15% 증가된 분단 영역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겠다.

가. 분단 영역 내용 변화 분석

남한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내용 관련 서술 중 <분단> 영역의 비율은 15% 증가했다.

<분단> 영역의 내용 변화 특징은 첫째, 분단의 원인과 과정은 분단 영역에서 유일하게 서술 비율은 감소했으나, 내용 변화가 긍정적인 내용 변화가 고찰되었다는 점, 둘째, 분단 이후 남북 상황 서술은 내용 서술의 비중도 증가하고, 내용상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 셋째, 남북분단의 문제점은 서술 비중은 3.7% 증가했지만, 내용상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세한 내용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 분단의 원인과 과정은 6차 교과서에서 7.2%(8문장), 7차 교과서에서 1.8%(2문장) 서술되어 있어, 5.4%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남북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다루는 비율은 감소했으나,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는 고무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6차 교과서에서는 ‘북한’을 전쟁의 주체로서 지목하고, 북한이 남한의 북침에 반격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에 대해 ‘위장된 변명이었고, 사실은 공산화를 위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7차 교과서에서는 분단의 원인을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이 아닌, 민족 내부의 갈등과 국제적 환경에 기인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다.

6차	7차
<p>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동족 상간의 전쟁을 개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참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민족 해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남한이 북침한 데 따른 반격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남침을 위한 위장된 변명이었고, 사실은 공산화를 위한 것이었다.(일반사회, p.221)</p>	<p>-일본의 강제 지배 아래 있던 우리 민족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광복되었지만 곧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남북의 분단은 민족 내부의 갈등과 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에서 기인한다.(정치,p.264)</p>

2) 분단 이후 남북 상황

분단 이후 남북한 상황 서술은 6차 9.0%(10문장)에서 7차 25.7%(28문장)으로 16.7% 증가했다. 6차 교과서에서는 분단 이후 남북의 ‘경제 성장’과정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 파탄과 남한의 경제 성장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같은 서술을 통해 남한 경제력의 우위를 설명하고 있다. 7차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남한의 경제 성장과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을 서술하고 있고,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질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국제 환경 속에서의 남북의 현실적 상황 등을 서술함으로써 6차 교과서에 비해 양적인 내용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분단 이후 남

북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차	7차
<p>-전쟁은 남북한이 서로 증오하도록 만들었고 ...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 남북한 갈등의 축이 체제의 정통성 문제에서 경제 성장과 국민의 복리로 전환된 것이었다. ... 이로써 남북한 간에는 경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를 통하여 남한의 경제 성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북한도 1950년대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으나, 1970년대 초는 경제 체제가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일반사회, p.222)</p>	<p>-남한과 북한은 ... 분단된 지 50년이 지났고, 그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다른 사회·문화적 경험을 해 왔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개인주의와 자유 경쟁을 강조한 반면,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아래에서 집단과 충성을 강조해 왔다. ... 이에 따라 분단 전과는 다른 이질성이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다.(사회, p.302)</p> <p>- ... 현재 남한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북한은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다.(경제, p.38)</p> <p>-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률이 약 8%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고속 성장을 이루었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 2~3%대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199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경제, p.40)</p>

3) 남북 분단의 문제점

남북 분단의 문제점은 6차 교과서에서 2.7%(3문장)에서 7차 교과서에서 6.4%(7문장)로 3.7% 증가했다. 6차 교과서에서는 남북 분단의 문제점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이며 민족의 통일은 대세를 움직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룩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7차 교과서에서도 남북 분단의 문제점을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과 통일로 인한 경제적인 효율성, 민족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대세 등으로 서술함으로써 6차, 7차 교과서의 내용상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6차	7차
<p>-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긴장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막대한 방위비 지출로 인하여 교육 부문을 제외한 다른 사회 개발 분야는 정부 투자가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국민모두가 경제 발전 단계에 걸맞지 않은 사회 복지 수준의 희생을 치러야 했다.(경제, p.230)</p> <p>-남북한 간에는 ... 넘어야 할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이제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세는 움직일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 (일반사회, p.225)</p>	<p>-... 세계화 시대에 남북한 소모적 군사대립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일이며, ...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의 경험·기술·자본이 북한의 노동력·자원과 결합하여 민족의 경제 역량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사회·문화, p.291)</p> <p>-우리 민족 문화 공동체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또 하나의 요소는 남북한 실질적 통합이다. (사회, p.333)</p>

나. 통일 영역 내용 변화 분석

남한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 중 <통일> 영역의 비율은 +42.6%로 가장 크게 증가한 영역이다.

<통일> 영역 내용 변화 특징은 첫째, 통일정책의 추진 관련 서술 비율은 감소했으나 6차, 7차 교과서에서 모두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통일의 방법관련 서술이 6차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7차 교과서에서 비율이 6.4% 증가하고, 그 내용도 통일 방법과 관련해 남한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셋째, 통일국가의 모습과 관련한 서술도 6차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내용이 7차 교과서에서 29.4% 크게 증가했고, 서술 내용도 현실적인 사고를 미리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넷째, 통일을 위한 준비와 관련한 서술도 양적인 증가와 함께 세부적인 내용도 긍정적인 변화가 고찰되었다.

자세한 내용 변화는 다음과 같다.

4) 통일정책의 추진

통일정책의 추진 과정은 6차 교과서에서 9.9%(11문장) 7차 교과서에서 3.7%(4문장)로 -6.2% 감소한 영역이다.

6차 교과서에서는 통일방안의 원칙, 80~90년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 등을 서술하고 있고, 7차 교과서에서는 통일방안의 구체적인 원칙을 포함한 2000년대의 대북포용정책등 최근의 남북 통일정책의 방향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정책의 추진 영역에서는 6, 7차 교과서 모두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내용 서술로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6차	7차
<p>-우리 정부는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한 간의 대화를 즐기치게 시도해 왔다. (일반사회, p.224)</p> <p>-정부는 1994년 광복절을 기해 ‘한민족력’이라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밝힌바 있고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남북한이 상호 두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 첫 단계이다. ... 마지막 단계는, 통일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경제, p.240)</p>	<p>-구체적인 통일 방안으로 ... ‘평화·화해·협</p> <p>다. ... 상호 공존과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통일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p.266)</p> <p>-현 정부(1998~2002년)는 ... ‘대북포용 정책’을 기조로 통일 정책을 펴으로써 6·15 남북 공동 참가 등의 성과를 얻어 냈다. (사회·문화, p.292)</p>

5) 통일의 방법

통일의 방법은 7차 교과서에서만 6.4%(7문장) 서술되고 있다. 남한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통일의 방법인 ‘고려 연방제’에 관련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7차 교육을 받은 남한의 청소년들은 남한과 북한 정부의 통일에 관련한 시각차를 교육받지 못한 세대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가 고찰된다.

6차	7차
제시되어 있지 않음.	-북한의 통일 원칙과 방안은 ...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고려 연방제) 을 고수하고 있다. ... 통일 국가의 형태는 남북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며, 제도 통일은 후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사회·문화, p.292)

6) 통일국가의 모습

통일국가의 모습은 6차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7차 교과서에서 29.4%(32문장) 나타나고 있다. 7차 교과서에는 남북 통일국가의 모습을 물가 상승, 도시화 촉진, 환경 파괴 등 부정적인 상황이 부각되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학생들에게 통일이 되기 전에 미리 통일 국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은 통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대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7차 교과서에서는 6차 교과서에서는 서술되지 않았던 통일 국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미리 상정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6차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다.

6차	7차
<p>제시되어 있지 않음.</p>	<p>-남북 통일 이후 경제 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 통일 초기에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물가 상승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더 나은 교육 및 문화생활의 기회와 직장을 찾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따라 북한 사회의 도시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지역 곳곳의 환경 파괴나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경제, p.240)</p>

7)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을 위한 준비에 관련한 서술은 6차 교과서에서 9.0%(10문장)에서 7차 교과서에서 22.0%(24문장)으로 13.0% 증가했다. 6차 교과서에서는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의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술하고 있고, ‘북한의 개방과 대남자세가 개선된다면’이라는 전제조건하에 통일을 준비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7차 교과서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남한의 경제력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의 경제력을 키워줌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6차에서 7차로 변화함에 있어서 6차 교과서에서는 통일의 주체를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른 ‘남한의 경제력’으로 본 것에서 7차에서는 ‘남북의 상호협력’으로 바뀐 것은 의의가 있다.

6차	7차
<p>-북한의 개방과 대남자세가 개선되면, 경제 원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고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경제,p.242)</p>	<p>-통일 이후 ... 여러 경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낙후된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남북한 간의 경제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은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경제, p.246)</p>

다. 정치 영역

<정치>영역은 남한 교과서에서 북한 관련 서술 내용이 분단 영역, 통일 영역에서 증가한 것과는 달리 24.3% 감소한 영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상대 국민·단체에 대한 인식, 체제의 우월성 강조, 상대 정치적 사건 서술이 6,7차 교과서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상대체제에 대한 인식 부분만 6차 교과서에서 24.3%나타났는데 7차에는 이 부분도 사라졌다는 특징이 있다. 자세한 내용 변화는 다음과 같다.

8) 상대체제에 대한 인식

상대체제에 대한 인식은 6차 교과서에는 24.3%(27문장)나타나고 있지만, 7차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6차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체제에 대한 인식은 ‘폐쇄적인’, ‘소극적인’ 등의 부정적인 어휘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6차 교과서에 나타난 것과 같은 북한 관련 부정적인 서술이 7차 교과서에서 사라진 것은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6차	7차
<p>-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북한은 남한과의 커다란 경제 발전 격차를 의식하여 ... 우리와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물론, 서방 세계에도 폐쇄적인 입장을 고집하면서 극히 제한적인 개방과 외자유치 정책을 고수하고, 개방 자체를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경제, p.237)</p>	<p>제시되어 있지 않음.</p>

라. 경제 · 사회 · 문화적 교류

정치 영역과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영역의 비율도 -33.2% 감소하였다.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영역 내용 변화 특징은 첫째, 경제적 교류 관련 서술이 6차에 비해, 7차 교과서에서 양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30.5%) 내용적인 서술에 있어서는 남과 북의 동등한 관계가 더욱 반영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 둘째, 6차에서 2.7% 나타나던 사회·문화적 교류의 내용이 7차에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경제적 교류

남북 경제적 교류를 다룬 내용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서술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 주도의 경제교류가 아닌 남북 경제가 함께 교류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교류의 방향과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6차 교과서에서는 남한 정부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의 특별조치로 인해 남북 경제교류가 확대되었다고 서술하고, 북한의 ‘폐쇄성 극복’ 여부에 따라 남북 교역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남한은 적극적인 주체로서, 북한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7차에서는 경제 교류에서 ‘남북공동체’ 등 남북을 동등한 관계로 서술하고 있다.

6차	7차
<p>정부는 북한에 경제 원조와 협력을 지속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대외 협력 차원에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포함시켜 돕는 것은 당연하다. ...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 (남한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교역규모는 남한으로서는 매우 미미하지만, 북한으로서는 5대 교역국의 하나로 부상할 만큼 큰 규모가 되었다. 앞으로, 북한이 폐쇄성을 극복하고 ... 경제 개방의 폭을 넓혀 나간다면, 남북한 경험은 물론 교역의 양과 질이 대폭 증대되어 북한의 가장 큰 교역 상대는 남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경제, pp.237-239)</p>	<p>지금까지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단기적, 산발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남북 경제 공동체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를 체계화하고 경제 의존성 및 결합도를 높여 가고자 하는 것이다. ...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경제 희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지가 향상되는 공동의 경제 생활권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남북 경제 공동체는 남북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전환시켜 평화 공존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경제, p.246)</p>

13) 사회·문화적 교류

남북 사회·문화적 교류를 다룬 내용은 6차 교과서에만 2.7%(3문장) 나타났고 그 내용은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의 필요성 강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6차	7차
<p>-남북한의 이질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유지했던 통일 국가의 문화적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 교육·학술·문화·예술·종교·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늘리면서,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민속이나 문화 유적·역사·지리·사회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p. 297)</p>	<p>제시되어 있지 않음.</p>

2.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 관련 내용 변화 분석

북한의 1999(98년)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관련 전체 서술 문장 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서술문장의 비중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아래 <표4>를 통해 북한 99(98)년 교과서와 2003년 교과서를 비교해볼 때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의 교과서와는 달리 본 연구 분석대상인 고등중학교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5,6학년 과정에서는 <분단>영역 관련 서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영역과 <정치> 영역은 2003년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99(98)년에 출판된 교과서에 비해 <통일>영역은 1.9% 감소, <정치>영역은 7.4%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세 내용을 분석해보면, 양적인 감소와는 달리 남한 관련 서술 내용은 변화 없거나, 혹은 더욱 부정적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영역의 상대 정치적 사건 서술은 양적인 비중 감소로 남한의 정치적 사건 관련 부정적인 내용이 감소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영역에서는 99(98)년과 2003년 교과서에서 모두 통일, 정치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지만, 99(98)년 5.0%에서 2003년 13.8%로 8.8% 증가한 것이 의미가 있다. 이 영역에서는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남북 다양한 교류를 다루고 있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표 4> 북한 고등중학교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 관련 서술 내용의 비율 분석

분류	세부내용	북한 김일성 김정일 혁명력사 교과서		증감%
		1999(98)년	7차	
분단	1.분단의 원인과 과정			
	2.분단 이후 남북 상황			
	3.남북 분단의 문제점			
소계				
통일	4.통일정책의 추진	22.7 (41)	27.6 (68)	+ 4.9
	5.통일의 방법	16.6 (30)	9.8 (24)	- 6.8
	6.통일국가의 모습			
	7.통일을 위한 준비			
소계		39.3 (71)	37.4 (92)	-1.9
정치	8.상대체제에 대한 인식	18.8 (34)	22.8 (56)	+ 4.0
	9.상대국민, 단체에 대한 인식	11.0 (20)	11.0 (27)	0
	10.체제의 우월성 강조	10.5 (19)	8.9 (22)	-1.6
	11.상대 정치적 사건 서술	15.5 (28)	6.1 (15)	-9.4
소계		55.8 (73)	48.8 (120)	-7.0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12.경제적 교류 (교류의 과정, 의의, 방법)			
	13.사회·문화적 교류	5.0 (9)	13.8 (34)	+ 8.8
소계		5.0 (9)	13.8 (34)	+ 8.8
총문장수		181	246	

위와 같은 북한 교과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99(98)년과 2003년 출판된 교과서의 남한 관련 서술 내용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분단 영역

북한의 고등중학교 5,6학년의 김일성·김정일 관련 교과서는 분단 영역 관련 서술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과목의 구성적인 특징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²⁵⁾

나. 통일 영역

북한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교과서에서 나타난 통일 관련 남한 내용 서술의 비율은 99년(98년) 교과서 39.3%, 2003년 교과서 37.4%로 99년(98년)에 비해 서술 비율을 -1.9% 감소했으나, 2003년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다. 통일영역 특징은 첫째, 통일 영역의 세부내용은 통일정책의 추진과 통일의 방법에만 편중되어있고, 통일국가의 모습이나 통일을 위한 준비 관련 서술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통일 정책의 추진 관련 서술이 99(98)년에 비해 서술 비율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이 증가했다는 점, 셋째, 통일의 방법 관련 서술은 99(98)년에 비해 서술 비율은 감소했지만, 세부 내용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5) 북한의 <혁명력사> 교과목은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연대기 순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1912.4 (김일성의 출생) ~1960년 까지 남북 분단의 시기와 관련된 서술은 고등중학교 4학년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5, 6학년 교과서에서는 분단 영역 관련 서술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혜진(2003), “북한 고등중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관련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자세한 내용 변화는 다음과 같다.

4) 통일 정책의 추진

통일정책의 추진은 99년(98년) 교과서에서 22.7% 서술되었고, 2003년 교과서에서는 27.6% 로 4.9% 증가했다. 99(98)년의 교과서에는 조국통일 3대원칙이 제시된 배경과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서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적극적인 통일정책의 추진으로 조국통일 3대원칙, 7.4남북공동선언 등의 역사적인 통일정책이 발표되었다고 서술함으로써 남한 정부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2003년 교과서에서 통일 정책의 추진 관련 내용은 증가했으나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조국통일3대원칙’이 실현되기까지의 과정 등 99(98)년 교과서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더라도, 99(98)년 교과서와 2003년의 교과서에서 남한 정부에 관련한 서술의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즉 99(98)년 교과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은 제의를 받아들이라는 남조선인민과 세계의 인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자 남조선괴뢰도당은 ‘하는 수없이’대화의 마당에 끌려나오게 되어, 결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측대표들과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밝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교과서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하는 수없이 협상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통일문제와는 상관없는 북남 적십자 회담을 요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후 북한 정부의 아량으로 적십자 회담이 이룩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조선괴뢰들은 북남협상마당에 더 깊이 끌려들어오게 되어 결국은 조국통일 3대원칙이 성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3년 통일정책의 추진 관련 내용은 증가했으나, 그 세부 내용은 남한 정부를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 북한에 대해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존재로서 나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서술 내용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다.

1999년(98년도) 교과서	2003년도 교과서
<p>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60(1971)년 8월 ... 폭넓은 협상방침을 내놓으시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제의를 받아들일데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압력이 강화되고 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자 남조선괴뢰도당은 하는수없이 대화의 마당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61(1972)년 5월 ...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밝히시었다.(김일성 혁명력사, p.60)</p> <p>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주체61(1972)년 7월 4일에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협상방침의 빛나는 승리였다. ... (김일성 혁명력사,p.61)</p>	<p>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주체 60(1971)년 8월 북과 남사이의 새로운 폭 넓은 협상방침을 내놓으시었다.</p> <p>... 이 방침이 발표되자 남조선인민들은 이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일것을 남조선괴뢰들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더는 어쩔수 없게 된 남조선괴뢰도당은 하는수없이 협상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흠어진 가족을 찾기 위한 북남적십자회담이나 하자고 하였다. 흠어 진 가족을 찾는것은 물론 나라의 통일문제토의와는 거리가 먼것이였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과 남사이의 적십자회담을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한 주동적인 제안을 내놓으시었다. ... 이 제안에 따라 남조선괴뢰들은 북남협상에 더 깊이 끌려 들어오게 되었다. ...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밝혀 주시였다. ... 그리하여 주체 61(1972)년 7월 4일 마침내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었다.(김일성 혁명력사, pp.58-60)</p>

5) 통일의 방법

통일의 방법에 관련한 내용은 99(98)년 교과서의 16.6%에서 2003년 9.8%으로 6.8% 감소되었다. 99(98)년과 2003년 공통적으로 통일 국가는 남북한 정부가 그대로 존속되면서 하나의 연방정부가 있는 연방제국가의 형식으로 평화적인 방법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9(98)년 교과서에서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2003년 교과서에서도 역시 통일을 남한 내에서의 노동자와 농민의 역할을 강조하며,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통일의 방법을 서술한 양적인 비중은 감소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하고, 남한에서의 주민 역할을 강조함에 있어서 내용상의 큰 변화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다.

1999(1998)년	2003년
<p>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과 남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강령이다. ... 새조국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투쟁하여나갈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게 하시었다. (김정일 혁명력사, p.115)</p>	<p>-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었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래도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김일성 혁명력사, p.65)</p> <p>-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를 이룩하여 북남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남한의) 노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었다.(김일성 혁명력사, p.4)</p>

다. 정치영역

북한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교과서에서 나타난 남한 관련 서술 중 <정치> 영역의 비율은 99(98)년 교과서 55.8%, 2003년 교과서 48.8%로 99(98)년에 비해 비율은 7.0% 감소했으나, 2003년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다. <정치>영역 내용 변화 특징은 첫째, 상대체제에 대한 인식과 상대국민·단체에 대한 인식,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서술 비중의 증감과 상관없이 99(98)년과 비교하여 서술 내용상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상대 정치적 사건 서술 내용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남한 정치 체제에 대한 왜곡된 서술내용이 양적으로 감소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8) 상대정치체제에 대한 인식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 체제에 대한 인식은 99(98)년 18.8%에서 2003년 22.8%로 4% 증가되었다. 대표적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99(98)년과 2003년 교과서에서 모두 남한과 미국이 <<두 개 조선>> 조작음모책동으로 남북분열을 영구화하려고 하는 통일방해세력으로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3년 교과서에서는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쟁위협을 더욱 가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예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의 확대와, 서해해상사건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이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고, 남한과 미국 때문에 정세가 전쟁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해 북한 99(98)년과 2003년 남한 관련 내용 서술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999년(98년)교과서	2003년 교과서
<p>-미제의 부추김필에 남조선괴뢰도당은 주체62(1973)년 6월 이후 <<두 개 조선>> 조작음모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공화국 분반구에 대한 침략전쟁도 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김정일 혁명력사, p.18)</p>	<p>-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마련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는 파탄상태에 빠지고 우리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김일성 혁명력사, p.61)</p>

9) 상대주민, 단체에 대한 인식

남한의 주민과 단체에 대한 인식은 99(98)년과 2003년 모두 11%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99(98)년 교과서에는 북한 학생들에게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도록 부정적인 서술로 일관된 것과는 달리 노동자인 일반대중에 대해서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투쟁을 하고,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서술하고 있다. 2003년에도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남조선의 혁명이 승리하여야 하는데, 그 승리를 이룩하는 주체를 남한의 노동자와 농민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남한의 일반대중들은 통일을 위해 과감한 투쟁을 함으로써 남한 정부의 범죄적 회담을 중단시키고,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서술하는 등 남한 인민들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서 통일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서술이 주를 이룬다. 즉,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의 정부 및 지도층은 반통일적인 세력인 반면, 남한의 일반 대중은 통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주체적인 대상으로서 서술 되고 있는 것이다. 99(98)년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2003년 교과서에서도 변함없이 북한의 남한정부와 일반대중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읽을 수 있다.

1999(98)년 교과서	2003년 교과서
<p>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 자신이 주동이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어 투쟁을 벌려야 미제 식민지통치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미제를 몰아낸 다음 인민들이 요구하는 새 사회를 건설 할 수 있다.(김일성 혁명력사, p.31)</p>	<p>-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군중 속에 깊이 뿌리 박은 노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었다.(p.4)</p> <p>-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매국적인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 나섰다. 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범좌적인 회담은 중단되었다.(김일성 혁명력사, p.28)</p>

10) 체제의 우월성 강조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서술은 99년(98년) 10.5%에서 2003년 8.9%로 1.6% 감소했다. 99(98)년 교과서에는 북한은 자주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적 권위와 위신이 높아지는 반면, 남조선괴뢰도당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김일성의 주체 사상탑과 개선문을 건설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혁명가와 인민들이 남한 정부의 감시를 뚫고 김일성을 찬양했다고 강조하며, 남한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남조선의 주민들은 김일성에 대해 무한한 존경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3년 교과서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찬양이 남조선의 주민들 뿐 아니라 해외동포,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모두 함께한다고 서술함으로써 북한체제와 김일성을 우상화 하는 도구로서 ‘남한’이나 ‘남한의 주민’을 서술하고 있다. 또 2003년 교과서에

서는 김일성의 사망을 서술함에 있어 반만년 역사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남한의 청년들과 인민들이 남한 정부의 억압 속에서도 김일성을 추모하며, 비통한 슬픔에 빠졌다고 서술하는 등, 다양한 서술을 통해 김일성이 최고의 지도자이며 우상임을 강조하며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3년 교과서에서는 99(98)년 교과서에 비해 남한 서술을 통해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1.6% 줄어들었지만, 세부 내용면에서 남한 관련 서술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분석된다.

1999(98)년 교과서	2003 교과서
<p>-(위대한 대원수님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건설하기 위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원쑤들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희귀한 대리석을 찾아내어 <<인류해방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주체의 향도성 김정일 동지 만세!>>라는 구호와 여러 가지 혁명적 글밭들을 정중히 새겨 보내왔다.(김정일 혁명력사,p.66)</p> <p>-우리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이 더욱 높아지고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빨리 늘어난 반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김일성혁명력사, p.60)</p>	<p>-(위대한 대원수님 기념비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도 지원사업에 떨쳐나섰다. ...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보내온 자원물자에는 희귀한 나무와 꽃들도 있었다.(김정일 혁명력사,p.94)</p> <p>-(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의 서거에) ...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은 민족의 슬픔이 하늘에 닿고 3천리 강토가 울음바다, 눈물의 바다로 변하였다. ... 남녘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각지에 분향소를 꾸려 놓고 원쑤들의 탄압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였으며 평양에 추모의 글들을 보내여왔다.(김일성 혁명력사, p.108)</p>

11) 상대 정치적 사건 서술

남한의 정치적 사건의 서술은 99(98)년 15.5%에서 2003년 6.1%로 9.4% 감소했다. 99(98)년 교과서에서는 남한 정부는 미국과 결탁하여 6.25 전쟁 후에도 북한의 주동적인 북남대화 제안을 거절하고 전쟁준비를 하느라 남한 인

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졌고, 이에 따라 남한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미국과 남한정부에 반대하는 광주민주화 운동 등 남조선의 전 지역에 걸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벌리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2003년에도 4.19혁명, 광주민주화 운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남한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남조선괴뢰도당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었다고 서술하는 등의 세부 내용은 99(98)년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의 4.19혁명이나 광주민주화 운동은 왜곡된 서술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한의 정치적 사건 서술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우리 정치 체제에 대한 왜곡된 서술이 감소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1999(98)년 교과서	2003년 교과서
<p>-주체 69(1980)년 3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남조선 전지역에서 (북남대화를 파탄시킨) 미제와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벌리었으며 ... 특히 주체 69(1980)년 5월 광주민민들의 영웅적봉기는 남조선의 파쇼통치기반을 크게 뒤흔들어놓았으며 미제와 군사파쇼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였다. ...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쇼도당은 비행기와 땅크, 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7만명의 괴뢰군을 내몰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학생들, 로인들과 부녀자들을 수천명이나 잡아죽여 광주시를 피바다에 잠그었다. ... (김일성 혁명력사, p.64)</p>	<p>-남조선 인민들은 주체49(1960)년 4월19일 미제의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 마침내 리승만괴뢰정부를 꺼꾸러뜨렸다. ... 남조선인민들의 4.19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나 (야수적인 탄압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다.(김일성 혁명력사, p.26)</p> <p>-주체68(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의 군사파쇼통치는 크게 뒤흔들리었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강화되었다. 특히 주체69(1980)년 5월 광주민민들은 괴뢰통치기관들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아 쥐고 적들과 용감히 싸웠다.(김일성 혁명력사, p.63)</p>

라. 경제 · 사회 · 문화적 교류

<경제 · 사회 · 문화적 교류>은 북한 교과서에서 남한 관련 서술 내용이 통일 영역, 정치영역에서 감소한 것과는 달리 8.8% 증가한 영역이다. 그러나 세부 서술내용은 사회·문화적 교류에만 치중되어 있고, 경제적인 교류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사회·문화적 교류의 서술 비중은 99(98)년에 비해 2003년도 교과서에서 증가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북한의 우월성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서술내용상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교과서에서는 99(98)년 교과서에서보다 남한과의 교류 분야가 다양하게 서술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3) 사회 · 문화적 교류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의 사회 · 문화적 교류와 관련된 부분의 서술비율은 증가했다. 99(98)년 교과서에서는 남조선의 수재민들에게 동포애적인 조치로서 수재구호물자를 전달함으로써 남한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혐오의 정이 더욱 두터워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2003년 교과서에서는 구호접수물자를 회피하려는 남조선당국자의 무례한 요구와 조건을 내걸고, 구호물자 전달사업을 파탄 내러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수재구호물자를 전달했다고 서술한다. 이로써 99(98)년 교과서에 비해 2003년 교과서에서는 수재구호물자를 전달함에 있어서 남한 정부의 태도를 더욱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동시에 북한 정부의 우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9(98)년 교과서에서는 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적십자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래왕을 서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데 비해 2003년 교과서에서는 적십

자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호상방문 외에도 90년대에 진행된 체육, 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류, 남한의 기업가 일행과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서술하는 등, 남과 북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다룬 것은 특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99년 교과서	2003년 교과서
<p>-위대한 원수님께서 주체 73(1984)년 9월 초순 공화국적십자회의 명의로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줄데 ... 그리하여 국토분단 근 40여년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쌀 5만석과 천50만메터, 세벤투 10만톤, 많은 의약품들이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가닿게 되었다. 우리의 동포애적인 조치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원수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더욱 높이고 적들의 북남대결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 주체74(1985)년 5월에 북과 남의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이 ... 진행되게 되었다. ... 나라가 분렬된지 40여년만에 처음으로 북과 남의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래왕이 실현되었으며 그후 여러 갈래의 래왕이 진행되었다. (김정일 혁명력사,p.117)</p>	<p><<우리는 수해를 입은 남조선리채민들에게 뜨거운 혈육의 정이 깃든 구호물자를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러저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구호물자접수를 회 피하려고 하였다. ... (남한 당국자는) 여러 가지 무례한 요구와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구호물자 전달사업을 파탄시켜 보려고 하였다. 적들의 속 심을 꿰뚫어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 묘안 을 내놓으시면서 회담을 주동적으로 끌고 나가 도록 하시였다. ... (김정일 혁명력사, p.136)</p> <p>-조국광복 40돐을 계기로 북과 남 사이의 적십 자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호상방문이 진행되었 다. ... 적십자분야만이 아니라 체육과 예술 등 여러 분야에도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시 었다. 결과 1990년대에 들어 서면서 평양과 서 울에서 ... <<통일축구경기>>를 진행하게 되었 다. 련이어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 6 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 을 구성하여 출전하였다. 그리고 북과 남의 예 술인들도 평양과 서울로 오고 가면서 <<범민족 통일음악회>>와 <<90송년통일음악회>>를 진행 하였다. (김정일 혁명력사, p.137)</p> <p>-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 남조선 기업가일행과 언론사대표단을 접견해 주시고 ...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한 기업가 일행을 또다시 접견하시고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은 ... 급격히 고조되고 있던 거래 의 통일열망을 더 한층 북돋아 주었다.(김정일 혁명력사, p.229)</p>

3. 남북 교과서 상대 관련 서술 내용 변화 분석 결과 및 논의

이상 각각 남북한 교과서 내용 변화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의 6차 교과서에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영역의 서술(37.8%), 정치 영역의 서술(24.3%), 분단 영역(18.9%)과 통일 영역(18.9%)순으로 북한 관련 서술이 나타난 반면, 7차 교과서에서는 통일 영역(61.5%), 분단 영역(33.9%),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영역(4.6%) 순으로 북한 관련 서술이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남한 교과서에서 북한 관련 서술 내용이 정치 영역에서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교과서에서 99(98)년 출판 교과서에서 2003년 출판된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남한관련 서술 내용 영역별 비중도는 99(98)년, 2003년 교과서에서 모두 정치 영역 -> 통일 영역 ->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최근 남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은 통일과 분단 영역을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는 반면,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 관련 서술은 여전히 정치적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영역별 세부 내용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단 영역

남북한 교과서에 상대관련 서술 중 <분단>영역에 속하는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 이후 남북 상황, 남북 분단의 문제점에 대한 서술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남한 교과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6차-18.9%, 7차-33.9%)으로 <분단> 영역을 서술한 데 반해, 북한의 고등중학교 5,6학년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에서는 <분단> 영역 관련한 서술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과목의 구성적인 특징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남한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 세부 내용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 이후 남북 상황 관련 서술은 비중의 증감과 상관없이 그 내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남북분단의 문제점 서술은 6,7차 모두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2. 통일 영역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영역 서술은 남한 6차 교과서에서는 통일 정책의 추진과정(9.9%), 통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9.0%)만 다루었지만, 7차 교과서로 바뀌면서 <통일> 영역에서의 다양한 세부 내용 설명, 즉 통일정책의 추진(3.7%), 통일을 위한 준비(22.0%)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법(6.4%), 통일 국가의 모습(29.4%)과 관련한 서술 역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북한 교과서의 <통일>영역관련 서술은 통일정책의 추진(6차-22.7%,7차-27.6%)과

통일의 방법(6차-16.6%, 7차-9.8%)에서만 남한 관련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 관련 서술 세부 내용의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교과서의 통일 정책의 추진 서술 비중은 6.2% 감소했지만, 세부 내용 서술에 있어서는 6,7차 교과서에서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서술을 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내용 서술 비중은 4.9% 증가했으나, 세부내용은 여전히 남한 정부는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 무능한 세력 등의 부정적인 내용의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서술의 증감과 상관없이, 남한은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 하는데 비해, 북한은 여전히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남한을 서술하고 있다.

둘째, 통일의 방법과 관련한 남한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은 7차 교과서에서만 6.4% 서술되고 있다. 7차 교과서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남한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의 통일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북한 교과서에서는 99(98)년에 비해 2003년 6.8% 서술 비율이 감소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99(98)년에 이어 2003년에도 여전히 연방정부제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고, 남한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99(98)년과 2003년 교과서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7차에서 새로 나타난 서술내용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반면, 북한 교과서는 서술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통일국가의 모습과 통일을 위한 준비 부분은 북한 교과서에는 서술되지 않고, 남한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부분이다. 남한 교과서에서 통일국가의 모습을 서술한 부분은 7차 교과서에서만 29.4%(32문장) 서술되고, 통일을 위한 준비 관련 서술은 6차에 비해 7차에서 13.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통일국가의 모습을 상징해보고, 통일을 위한 준비, 즉 통일을 미리 대비하는 서술이 7차 교과서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북한 2003년 교과서에는 여전히 통일국가의 모습과 통일을 위한 준비 부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남 북 교과서의 특이할 만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3. 정치영역

남한 교과서에서는 상대국민·단체에 대한 인식, 체제의 우월성 강조, 상대정치적 사건 서술과 같은 내용 서술은 6,7차 교과서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고, 상대체제에 대한 인식 부분만 6차 교과서에서 24.3%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북한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교과서에서 나타난 <정치> 영역 남한 내용 서술의 비율은 99(98)년 교과서 55.8%, 2003년 교과서 48.4%로 99(98)년에 비해 비율은 7.4% 줄었으나, 2003년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남한 관련 서술을 <정치>교육의 영역에서 주로 다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상대관련 서술 내용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 관련 서술 세부 내용의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6차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은 ‘폐쇄적’ ‘소극적’ 등의 단어 사용과 같이 부정적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7차로 변화하면서 부정적 북한 체제 인식 내용은 없어졌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체제에 대한 인식은 2003년 교과서에서 4% 증가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증가된 내용의 대부분이 남한 정부를 통일방해세력으로서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한 교과서에는 더 이상 북한 체제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반면, 북한 교과서에는 여전히 남한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한 관련 부정적 내용서술은 추후 북한 교과서 시정사업을 통해 차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상대 국민과 단체에 대한 인식은 북한 교과서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99(98)년과 2003년 서술비중도 11%로 동일하고, 상세 내용면에서도 변함없이 남한 국민과 단체를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투쟁을 하는 존재로서 변함없이 서술하고 있다. 99(98)년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2003년 교과서에서도 변함없이 북한의 남한정부와 일반대중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셋째,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남한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북한 교과서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 서술은 1.6% 감소했으나, 99(98)년과 2003년 교과서에서 일관되게 북한의 국제적 위신은 높아지고, 남한은 위기에 처했으며, 남한의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존경한다는 내용서술을 통해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술비중의 증감과 상관없이 세부 내용면에서 남한 관련 서술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분석된다.

넷째, 남한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사건 서술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북한 교과서에는 남한의 정치적 사건의 서술이 99(98년) 15.5%, 2003년 6.1%로 나타나고 있다. 내용의 양적인 면은 9.4% 감소했다.

북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남한의 정치적 사건은 광주민주화 운동, 4.19 혁명 등에 관련한 서술이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이와 같은 사건은 왜곡된 방식의 서술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한의 정치적 사건 서술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우리 정치 체제에 대한 왜곡된 서술이 감소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다.

4.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영역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영역에서도 남북 교과서의 서술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경제적 교류의 과정, 의의, 방법 등이 6차 교과서에서 -30.5% 크게 줄어들었고, 사회·문화적 교류는 6차 교과서에서 2.7%, 7차 교과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경제적 교류와 관련한 서술은 없었고, 사회·문화적 교류는 99(98)년도 5%, 2003년도 13.8%의 비율로 8.8%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다.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세부 내용의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6차 교과서에서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의 과정, 방향, 의의는 대부분 남한이 주동적이고, 북한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7차 교과서에서는 양적인 수치는 크게(-33.2%) 줄어들었지만, 6차와 같이 남한 주도의 경제교류가 아닌 남북 경제가 함께 교류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함으로써 경제 교류에서 남북의 동등한 관계가 더욱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7차 교과서에서도 역시 북한정부나 국민 등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6차에 비해 7차에서 세부 내용의 긍정적인 변화는 나타났으나, 양적인 면에서 서술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교류와 관련한 내용은 남한 교과서에는 6차에만 2.7% 나타나고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99(98)년, 2003년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남조선의 수재민들에게 수재구호물자를 전달한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서술에서 공통적으로 북한정부의 우월성과 반(反)남한 정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특이할 점은 2003년 교과서에서는 적십자예술단 및 고향

방문단의 호상방문 외에도 90년대에 진행된 체육, 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류, 남한의 기업가 일행과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류의 내용이 대부분 북한 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내용이기 는 하지만, 북한의 학생들이 남과 북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내용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남과 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교류가 진행중이고, 그에 발맞춰 사회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한의 교과서에서 북한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관련 서술이 크게 감소하고, 남북 교과서에서 상대와의 경제적 교류의 내용이 거의 서술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분단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 더 남북 이질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민족의 통일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상대 체제의 상이한 사회·문화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추후 남북 교과서의 경제·사회·문화적 서술 관련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상대 체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상대와 관련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의 제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50년이 넘는 분단 구조 속에서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통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다. 1980년대 말 미소양진영의 냉전구도가 종식되었고, 이러한 영향 하에서 남북관계도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 환경이 점차 발전적으로 형성되어감에 따라 통일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은 통일을 대비하고,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²⁶⁾

민족의 통일은 남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에서 비로소 실제적인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상이한 사회체계에 대한 각 방면의 파악을 통해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인식을 예측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²⁷⁾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현재 남북한 고등학교(고등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대관련 서술이 2000년대를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관련 서술 유형의 영역별 비중은 매우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했다. 남한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은 6차 교과서에서는 경제·사회·문화적 서술(37.8%)과 정치영역 서술(24.3%)이 높게 나타난 반면, 7차 교과서에서는 통일영역(61.5%)과 분단영역(33.9%)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 관련 서술은 99(98)년과 2003년 여전히 정치영역과 통일 영역에서 높은 서술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치영역에서의 남한 관련 서술은 99(98)년에

26) 심익섭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 : 엠에드, 2004. p.237.

27) 박재환(1989). 남한 사회의 일상적 삶에 대한 북한의 인식. 민족문제연구소. Vol.2. p.110.

55.8%에 이어 2003년에도 48.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남북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관련 서술 내용 역시 매우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6차에서 7차로의 변화에서 <분단>영역에서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 이후 남북 상황, <통일>영역에서 통일의 방법, 통일 국가의 모습, 통일을 위한 준비, <정치>영역에서 상대체제에 대한 인식,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영역에서 경제적 교류 등, 모든 영역의 세부내용에서 북한 관련 내용 서술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북한 교과서에서는 99(98)년에서 2003년도의 변화에서 <정치>영역의 상대 정치적 사건 서술에서 남한 관련 왜곡된 정치적 사건 서술의 양적 비중 감소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영역에서 남한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다루었다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한 관련 내용은 99(98)년에 비해 더욱 부정적으로 서술되거나 혹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한은 북한 관련 서술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과거와 같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남북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관련 서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남한의 통일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연구자가 선불리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관련 서술 중 어느 한 쪽이 바람직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통일 이전에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상대 관련 올바르게 객관적인 지식 습득을 통해, 통일 이후 민족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하고 그 방법은 민주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재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²⁸⁾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전부터 상대관련 서술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8) 엄재호 외2인,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 교육 내용 분석, 평화연구 제21집, 1995. p.23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 관련 서술 내용에 비해, 남한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 내용이 통일 이후 민족 동질성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교육으로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남한의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 내용 역시, 장차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통일이후의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충분히 대비할 정도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한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 관련 서술 내용이 보완되고,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상대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과 교과서에서 상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과서 내에서 상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보 제공 서술 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의 교과서에서는 상대 관련 서술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남북한의 이질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동질성을 찾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통일 이후 사회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남한과 북한 주민과의 차이점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동질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 교과서에서 통일국가의 모습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서술할 필요성이 있다. 남한 7차 교과서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국가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물가상승, 도시화 촉진, 환경 파괴 등 부정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남한의 학생들에게 통일이 되기 전에 미리 통일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경제·사회적 통합과정에서의 혼란 등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통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대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

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통일국가의 모습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면 남한의 학생들은 자칫 통일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객관적인 서술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통일 이후 상대 국민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 관련 서술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남한 교과서의 <통일> 영역에서도 통일이 되기 ‘이전’ 북한에 대한 남한 정부와 국민들의 태도와 준비 등에 관련된 서술을 살펴볼 수 있으나, 통일 ‘후’ 함께 살게 될 북한 주민들에 대해 남한의 정부와 국민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교육을 받고 통일이 된다면, 남북의 국민과 청소년들은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겠으나, 실제 함께 부딪치며 생활해야 할 상대의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우위 등을 바탕으로 지나친 우월의식이 앞서 행동함으로써 남과 북 국민들 사이에 심리적 재분단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상대의 주민들에게 취해야 할 우리의 행동을 교과서에 추가하여 통일이전부터 통일 이후 상대국민과의 관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다. 남북한 학생들이 상대와 관련하여 받고 있는 교육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것은 남북분단을 연장시키고, 통일 이후에도 내부적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교육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육’ 분야에서부터 통일이전과 이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통일 후 남북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한(1996). 북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내용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2집.
- 김경호(2000). 북한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교육논총」. 제26집.
- 김병로(1994).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영아(2005).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 변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5). 남북한 정치교육 비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은(2005). 북한의 사회과 교육: 고등중학교 4·5학년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환(1999). 남한 사회의 일상적 삶에 대한 북한의 인식. 「민족문제논총」. 제2집.
- 백재욱(2000). 대북포용정책 추진이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용철(1992). 독일의 통일과 교육의 통합-교육을 통한 한국 통일방향의 모색-. 「아태연구」. 제1집.
- 심은혜(1997). 남북한 정치교육 비교연구-중고등학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복(2003).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교육 내용분석.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우(1999). 남북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비교 연구. 「초등교육연구」. 제9집.
- 이준희(2004). 북한의 대남 인식변화와 남북한 관계-신년사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균상 외 4인(1997).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윤구병 외(1988). 교과서와 이데올로기. 서울: 천지.
- 엄현아(2001). 북한 고등중학교 교과서의 통일관련 내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재호 외(1996).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내용 분석. 「평화연구」 제21집.
- 장희진(2001).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과서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성희(2001). 통일 사회를 대비한 북한 사회과 교과서 내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숙자(1993). 북한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인간관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교육」 제 26호.
- 정영수 외2인(1998). 통일 후 독일의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한독교육학연구」. 제4권 2호.
- 정영순(1999).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사회과교육」. 제32호.
- 정용하, 김태환(2005). 통일교육 방식과 내용에 따른 통일·평화의식의 변화. 「韓國民族文化」, 제26권.
- 정창화(1997).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통일·안보교육 관련 내용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2003). 북한 고등중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관련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혜련(2004). 남북한 중등학교 정치교육의 비교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호(2001). 남북한 중등 교과서에 나타난 가치관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통일부(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북한 교과서>

교육도서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5학년(1998),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5학년(200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6학년(1999),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6학년(200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남한 교과서>

교육부(1996) . 「고등학교 공통사회(상):일반사회」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1996) . 「고등학교 정치」.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1996) . 「고등학교 경제」.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한상진·이강하(1996) .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주)천재교육.

김재환외(2002). 「고등학교 사회」 서울: 법문사.

강세중외(2002). 「고등학교 정치」 서울: (주)천재교육.

조도근외(2002). 「고등학교 경제」 서울: (주)두산.

노경주외(2002)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주)천재교육.

ABSTRACT

Comparative Study about North and South Koreas Depicted in Social Studies Textbooks

Cho, Hye–Jung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uth and North Korean students' exposure to such biased contents on one another during adolescence, a crucial period for forming knowledge and perspectives, is not only an obstacle to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countries, but could contribute to potential problems (e.g., second division) after reunification as well. Therefore, the key challenge in social studies going forward is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n students to receive proper education and therefore form an objective and reasonable perspective on the re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of North and South Korean high school–level social study text books through a deep–dive comparison of the two evolutionary paths since the late 20th century.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bases its argument on both countries' main social studies textbooks: South Korea's 6th and 7th revised versions of social studies textbooks: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general social studies and North Korea's "Revolutionary History Under the Great regime of Il Sung Kim" and "Revolutionary History Under the Great regime of Jung Il Kim."

Recently the first evolutionary characteristic in the South Korean textbooks is that it comes to describe North Korea with a more positive note. The 6th revised edition has the most focus on politics (24.3%) and still uses negative descriptive terms such as "closed" and "passive" when describing North Korea's social structure. The 7th edition replaced all political comments on North Korea with proposals on the required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of the two countries (22.0%) and hypothetical descriptions of the countries after unification (29.4%). This change shows that South Korean textbooks depict North Korea as "one nation" and take effort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the reunification.

In contrast, the North Korean textbooks still depict South Korea negatively using it as a propaganda instrument to promote North Korea's political direction. North Korea's 1999(1998) and 2003 editions had still focused descriptions on politics and reunification; descriptions on South Korean politics in 1999(1998) was 55.8% and still high at 48.4% even in 2003. The descriptive contents did not change much between these two editions still, South Korea was depicted negatively as an obstacle to the reunification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was

described as both "ineffective" and "passive", praising Il Sung Kim and Jung Il Kim and their regime in effect.

As mentioned above, South Korea's approach in describing North Korea would be more effective in promoting and sustaining the notion of "one nation" in case of the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countries than North Korea. Nevertheless, South Korean textbooks do not sufficiently preempt or prepare for potential problems post-reunification (e.g., clash of different cultures, etc).Therefore, this study aim to provide a perspective on how the South Korean social studies textbooks could move forward:

First, South Korean textbooks should acknowledge more diverse aspects of North Korean society,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etc.

Second, instead of limiting focus the anticipation of post-reunification problems, the textbooks should also provide a more balanced view with positive descriptions on the potential future of the two countries.

Third, in addition to raising potential problems, the textbooks should make recommendations on e.g., how South Korean students could respond to receive North Koreans into their society post-reunification.

<참고부록 1>

<남북한 학제 비교>

고등교육	대학원 (석사 2-3년, 박사 4-5년)		28	연구원 (3-4)			고등교육
			27				
			26				
			25				
			24				
			23				
	전문대학 (2-3)	일반대학(4)	22	일반대학 (4-6)			
교육대학(4)		21					
		20	교원대 학(3)	고등 전문학교 (2-3)			
		19					
중등교육	고등학교(3)		18	고등 중학교	고등반(2) 중등반(4)	중등교육	
			17				
	중학교(3)		16				
			15				
			14				
초등교육	초등학교(6)		13	인민학교(4)			초등교육
			12				
			11				
			10				
			9				
			8				
학교전 교육	유치원		7	유치원	높은반(1) 낮은반(1)	학교전 교육	
			6				
			5				
	유아원		4				
			3				
남한		연령	북한				

출처 : 전숙자 (1997), "북한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인간관", 사회과 교육, 제23호

<참고부록 2> 남한 사회과 교과서 분석

	세부내용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일반사회		총계	
		6차	7차	6차	7차	6차	7차	6차	7차	6차	7차
분단	1.분단의 원인과 과정		1	1		1	1	6		6.9 (8)	1.8 (2)
	2.분단 이후 남북 상황			1	20		4	9	4	8.6 (10)	16.6 (28)
	3.남북 분단의 문제점		3	1			2	2	2	2.6 (3)	3.7 (7)
통일	4.통일정책의 추진		1	5			2	6	1	9.5 (11)	3.6 (4)
	5.통일의 방법						6		1	6.4 (7)	
	6.통일국가의 모습		3		28				1	29.1 (32)	
	7.통일을 위한 준비	2	4	3	15	1	2	4	3	8.6 (10)	21.8 (24)
정치	8.상대체제에 대한 인식			6		13		8		23.3 (27)	
	9. 상대국민, 단체에 대한 인식										
	10.체제의 우월성 강조										
	11.상대정치적 사건 서술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12.경제적 교류(교류의 과정, 의의, 방법)			35	5	4				33.6 (39)	4.5 (5)
	13.사회·문화적 교류					2		1		2.6 (3)	
문장 수		2	12	52	68	21	17	36	12	111	109

※비율%(수)

<참고부록 3> 북한 사회과 교과서 분석

	세부내용	김일성		김정일		총계	
		혁명력사(고등중5)		혁명력사(고등중6)		1999 (1998)	2003
		1998년도	2003년도	1999	2003		
분단	1.분단의 원인과 과정						
	2.분단 이후 남북 상황						
	3.남북 분단의 문제점						
통일	4.통일정책의 추진	17.6(18)	35.2(45)	29.1(23)	19.5(23)	22.7(41)	27.6(68)
	5.통일의 방법	20.6(21)	10.2(13)	11.4(9)	9.3(11)	16.6(30)	9.8(24)
	6.통일국가의 모습						
	7.통일을 위한 준비						
정치	8.상대체제에 대한 인식(통일방해세력)	18.6(19)	20.4(26)	19(15)	25.4(30)	18.8(34)	22.8(56)
	9.상대국민, 단체에 대한 인식	11.7(12)	16.4(21)	10.1(8)	5.1(6)	11(20)	11(27)
	10.체제의 우월성 강조	11.7(12)	8.6(11)	8.9(7)	9.3(11)	10.5(19)	8.9 (22)
	11.상대정치적 사건 서술	19.6(20)	9.4(12)	10.1 (8)	2.5(3)	15.5(28)	5.7(15)
경제·사· 회· 문화 적 교류	12.경 제적교류(교류의 과정, 의의, 방법)						
	13.사회·문화적 교류			11.4(9)	28.8(34)	5(9)	13.8(34)
	총문장수					181	246